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연수공원, 학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은 12,3학년 전체가 진로체험을 하는 날이다. 2학년은 각 반마다 진로체험코스가 다른데, 우리반은 학교나 공원에서 진로체험을 진행했다. 사실, 원래는 다른반처럼 다른 장소를 견학을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하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실망스러웠지만, 안내장을 받고 불평을 하기도 했고 말이다. 하지만, 처음불평했던 것에 비해서는 선생님들도 친절하셨고, 수업도 흥미롭게 진행해주셔서, 꽤 보람찬 진로체험이었다고 생각한다. 또 처음에는 학교 바로 옆에있는 연수공원을 한바퀴돌면서 공원에있는 동식물들에 대해 관찰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신현이가 교사 선생님께서 공원에있는 동식물들을 가리키고, 거기다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제일 인상관계 들었던 것이 '회양목'이다. 일년에 고작해야 1cm밖에 안자라는 작은 나무, 귀가 작은 대신 속이 단단하고 딱딱해서 도장으로 쓰인다고 한다. 회양목의 설명을 들으면서 봄에 늦게서야 새싹이 나지만, 뿌리가 깊어서 한번뿌어나면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이따를랐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회양목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기억에 남았다. 회양목의 특징은 사랑한테도 적용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남들보다 몸집같은 것에는 약해트 지식이 같고 품위하다거나 속이깊은 사랑이 회양목에 비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교실에서도 선생님께서 웃들은 친구들을 위해 더깊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당거미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에 남았다. 특히 거미가 줄로 집을 짓는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하나는 먹이잡이용, 하나는 휴식용, 하나는 화장실용 이라고 한다. '거미도 방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재밌었던 것 같다.</p> <p>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신 동식물들을 가지고 빙고게임도 진행했다. 아주 쉽게 빙고에서 이기는 것 했지만 덕분에 새롭게 알게된 '메타신라이어', '대왕참나무', '회화나무' 등의 이름이 속속 머리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등</p> <p>'학교주변 숲탐방' 프로그램은 우리주변에 있지만 이름도 모르고 지냈던 생물들에 대해 더깊게 관찰할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깊고, 새롭게 느껴졌던 시간이었다. 비가오지 않았다면 그래도 더기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텐데 좋은 생각들이 들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고, 느낀것과 많은 보람찬 시간이었다.</p> <p>품의되는 시간이후 진행된 프로그램은 '인공위성'과 우리국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 국토교통정보공사에서 강사선생님이 직접내려오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셨다. 인공위성은 우리가 잘다시피, 어떤특정한 목적을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 띄워올린 위성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GPS, 국방문제등에 활용하기 위해 인공위성을 발사시켰다. 우리나라역시 '우리별 1호'라는 인공위성을 시작으로 더욱 발달된 인공위성을 계속 띄워올렸고, 지금도 계속 개발중이라고 한다. 안</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타깝게 느껴졌던 점은 우리나라에는 인공위성 발사체가 없어서 러시아나 중국에 발사체를 빌려다 쓴다는 점이였다. 2020년에 해남에 인공위성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빨리 인공위성 발사체가 개발되어 우리나라에서 직접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모습을 볼수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위성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우주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다. 우주쓰레기는 인공위성이나 위성에서 떨어져나온 작은 돌덩어리나 기계부품이 지구주변을 돌돌 떠다니는 것이다. 10cm 이상이나 되는 것이 1만 5천여개 이상있고, 그보다작은 것은 수천만개까지 많을게는 몇억개 정도나 된다고 한다. 책에서 이 우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읽은적이 있는데, 이 우주쓰레기는 크기가 큰것은 인공위성과 비슷하여 부품을 고장나게 하거나 망가뜨리기도 하고, 간혹 크기가 작은것이 우주인들로 하여금 탐사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인공위성에도 역시 단점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억에 남았다.

그밖에 인공위성으로 지면에서부터 55cm 이상 떨어진 물체를 찍을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우리 국토가 얼마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국토교통정보공사는 어떤일을 하는지도 설명해주셨다. 이것저것 설명해주시는동안 한시간이 지나갔고, 곧바로 다음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마지막프로그램은 인공위성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었다. 2006년에 개발되었다는 '아폴로 2호'의 모형을 조립하는 시간이었다. 많이 복잡하지만 아주쉽게 조립할수있었다. 인공위성을 조립하면서 "이렇게 생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된다면 내부구조도 파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고. 인공위성에 훨씬 관심이 생긴 제형이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진로체험은 마무리되었다. 날씨나 장소같은 아쉬운부분이 있긴했지만, 그나마에 꼭 그날을 만큼 보람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숙업을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ㅎㅎ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임실 치즈마을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 우리반은 임실 치즈마을로 진로 체험을 가게 되었다. 다른 반들은 재미없는 곳으로 가기도 했다는데, 우리반은 담임선생님이 잘 뽑아주신 덕분에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다.</p> <p>버스를 타고 도착한 치즈마을은 아침이라 그런지 꽤 추웠다. 하지만 전차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풍냄새와 맑은 공기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물론 거기에는 별로 당감지 않은 시골의 소동냄새도 있었다. 버스에서 내린 곳에서 치즈마을의 건물까지는 서리가 좀 있어서 탄상 졸으신 할아버지들께서 손수 운전해주시는 경운기를 타고 갔다. 그러나 공간에 비쳐 사랑수가 많고 게다가 나는 제일 끝쪽에 앉게 되어, 경운기를 타는 동안 골반뼈가 아픈다고 느끼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추운 날씨에 경운기를 운전해주시는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난 우리 할아버지가 경운기에 태워주신 적이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다.</p> <p>우리는 그 건물에 도착하여 6차산업과 음식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었다. 나는 '6차 산업'이란 말을 들었을 때 '벌써 산업이 초등학생때 배운 3차 산업을 넘어서 그렇게 많이 발전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6차 산업은 농·수산업인 1차 산업, 가공·제조업인 2차 산업, 서비스업인 3차 산업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6차 산업은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므로 농촌의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체계이다. 농촌에서 생산된 자원이 3차 산업을 거치며 가치가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농촌으로 환원되는 것도 6차 산업이지만, 우리가 방문한 임실 치즈마을 또한 6차 산업이다. 단순히 1·2차 산업으로 치즈를 생산하기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즈체험의 기회를 주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기억을 심어주므로 이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인 셈이다. 이러한 6차 산업은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속에서도 안전하며 각광받는다니,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산업인 것 같다.</p> <p>또한 '음식관광코디네이터'라는 생소한 직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황씨는 이 직업이 음식을 데코레이션하는 직업인 줄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 정의는 전혀 다른 뜻이었다. 음식관광코디네이터는 음식체험 관광테마를 개발하고, 특색음식의 발굴과 관광루트, 교통, 숙박 등 일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직업이었다. 임실 치즈마을 또한 음식관광코디네이터의 수많은 아이디어와 노력 등으로 빛어진 '한국 최초 치즈체험상'이라는 결과물인 것이다. 음식관광코디네이터는 6차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농산물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또한</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조사 및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한다. 이 직업은 가까운 미래에 농업·농촌분야 선도직업으로 각광받으며 전망이 밝게까지도 한다. 나는 평소에도 여러 매체에서 농촌에 활손이 부족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우리가 도시에서 밥먹는 것까지 힘들어 질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했는데, 음식관광코디네이터 분들 덕에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렇지만 나는 농촌에서 일하거나 음식관광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다. 힘이 세지 않아서 벌도움도 안되고(어쩌면 오히려 징이 될지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 발에 여러 번 가본 결과 농촌은 내 체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육식보다 벌레가 싫다!) 나는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음식관광코디네이터 분들을 열심히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해야겠다.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버렸다... 여하튼 우리는 치즈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후 본격적으로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다. 숙성치즈처럼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즈는 시간상 힘들어서 미리 만들어놓은 치즈의 전 단계인 '퀴트'를 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었다. 어쩌다 보니 우리 조에서 내가 이끄는게 되어 치즈를 만들는데 핵심(?)이 되어 버렸는데, 처음에는 이끄는 역할이 귀찮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치즈마을에 와서 체험을 즐겁고 교육적으로 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뜨거운 물에 넣은 퀴트를 늘리고 줄이는 것과 친구들과 치즈의 가장자리를 잡고 쪽쪽 늘리는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만든 치즈로 피자를 만들어 먹었다. 만드는 동안에는 분명 맛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막상 나중에 먹어보니 다른 친구 것보다 맛이 좀 별로였다... (역시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다). 그래도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체험이 끝나고 치즈마을에서 나올 때 나뭇 나뭇에 농촌에서 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부모님도 노후에 고향인 남원으로 가서서 작게나마 밭일을 하고 싶어하신다. 부모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어 갈수록 시골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강해진다는데, 50~60년 후의 나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지 궁금했다. 그때가 되면 아마 6차산업이 복리를 내려 '1도향촌'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농업이 튼튼하게 유지되면 좋겠다.

(P.S. 학교에서 점심먹는데 그날따라 맛있는 음식이 나왔었다... 배부른지만 많았으면 참 맛있었을 텐데...)

# 지루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저희는 10월 11일 수요일에 진로직업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첫시간에는 연구원이오셔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강의실에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과학과 공학의 용어정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주셨고 덕분에 풍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풍차의 발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최초의 풍차와 오늘날의 풍력발전기를 비교해보니 확실히 많이 발전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다 들은 후 장소를 이동하여 풍력발전기의 날개 부분을 실제로 보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길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서 놀랐습니다. 날개의 길이를 40m라고 하었는데, 그렇게 큰 날개가 바람이 힘차게 부는 날 그 높이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약간 아찔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날개 관찰 후 맛있는 점심을 먹고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 체험관으로 모였습니다. 체험관에서는 특히 더 많은 것을 배웠는데, 소수력발전기와 풍력발전기,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배웠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이오에너지였습니다. 수력, 태양력, 풍력, 지열 등은 그래도 주변에서 가장 흔히 들어볼 수 있었던 에너지였는데 바이오에너지는 이번 시간에 처음 들어봤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음식물쓰레기라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체험관에서는 '체험'이라는 단어가 붙은 만큼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 소수력 발전기 모형에 물을 떨어뜨려 발생하는 에너지도 측정해보고, 태양광 에너지와 관련해 축구게임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굴려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소자동차였습니다. 수소는 우주의 70%라는 것을 광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는 굉장히 많은데, 그 장점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들이 고갈되어가고 있고 이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수소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소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소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인지 그저 신기했습니다. 현재 수소자동차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유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과연 먼 미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조립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이 만능 로봇을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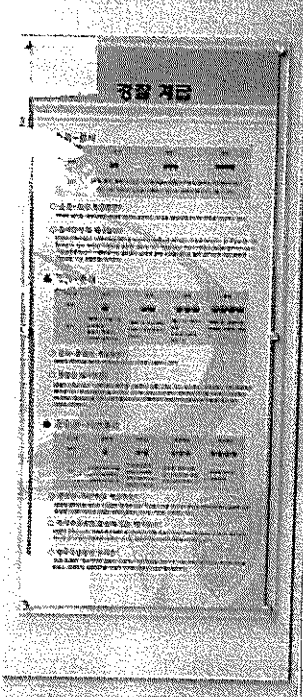
그냥 로봇이 아닌 태양광을 받으면 스스로 움직이는 태양광 로봇이었습니다. 사실 조립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를 완벽하니 귀엽고 부끄러웠습니다. 처음에 부안까지 갔다고 했을 때 우리반만 늦게 끝난다는 사실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막상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에너지도 많을 것이고,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욱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나 샘솟기만 할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할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재생에너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서 고갈 내버리는 사태를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에너지의 중요함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지루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캄수리 경찰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2학년 2학기 진로체험으로 캄수리 경찰서에 버스로 약 20분을 달려 도착했다. 처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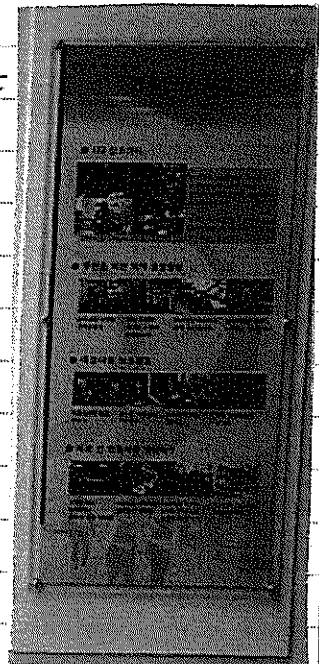
경찰관의 제복과 종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경찰제복은 순경~경사, 경위~중령, 진무관~치안 중장으로 나뉘는데 제복을 입은 사람은 진부경찰, 아님사람은 형사,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세분화된 명칭을 처음 알았다. 각각 자리에 따라 하는 일과 직책이 세분화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전혀 짐작이 못했던 용어를 접하게 되었다.

그다음에는 경찰 제복을 볼 수 있었다. 경찰제복은 TV 같은 매체를 통해 순경들이 입는 제복을 보기 흔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었다. 경찰관께서 실제로 제복을 입고자 경찰이 되는 사람도 많다고 하셔서 웃었다. 그리고 경찰관의 무기를 보았는데, 무기 종류를 매우 좋아하는데마다 매우 흥미있었다. 생각은 TV에서 본 것 있지만 테이저건은 처음 보았고, 안채이 맞아도 무해하긴 하지만 엄청 아프다고 하여 어떤 느낌인지 궁금했다. 그 다음으로 경찰서의 중 관제규격에 방문하였다.

실제로 경찰관들이 이곳에서 신고된 죄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올바른 신고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관들에게 전달되는지 또한 배울 수 있었다.

실제로 경찰관들은 직무에 따라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눈으로 보거나 해본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을 통해 하고 여러 신고를 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경찰관의 일은 개원의 사소한 분물이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위해 출재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쉽게 신고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범죄를 발견하였을 때는 바로 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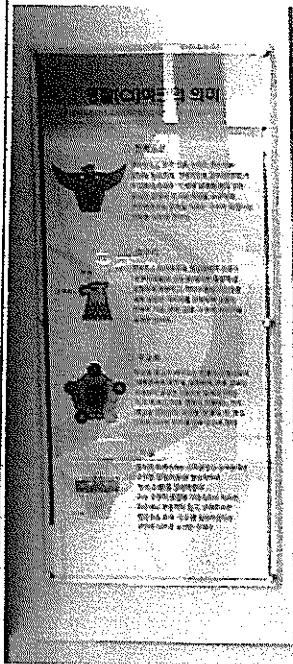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는 가장 신고하고 좋아하는 과학수사팀을 방문하였다. 나는 평소에도 미국 드라마 CSI를 엄청 좋아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범죄관련 용어들을 익히 많이 들어왔다.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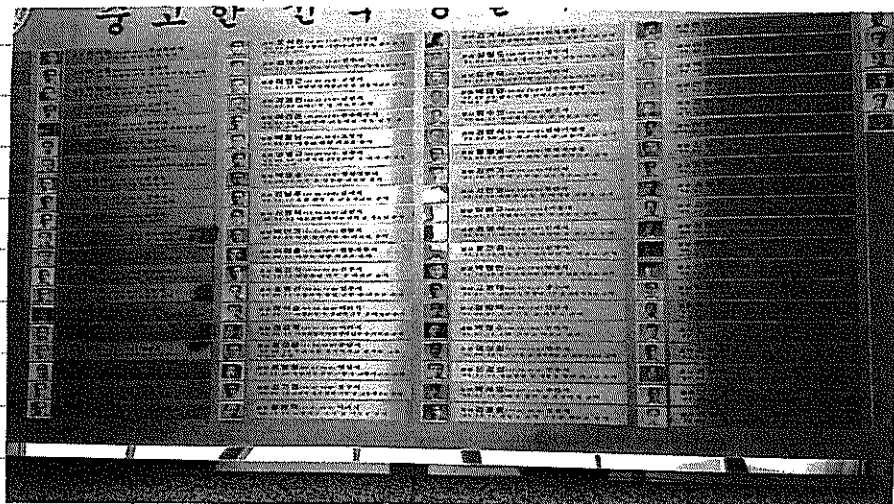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마에 나왔던 도구를 직접 볼 수 있다. 우리는 특히 한 손권등으로 지문, 족지 등을 관찰하였고, 지폐와 머핀, 신권중이 부착된 것이기 아닌지를 감별하였고, 여권과 달리 과학이 발달하여 전자식으로도 과학이 많이 적용되는게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경찰사에 가서 보고 귀찮은 컴퓨터와 두꺼비가 경찰관을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귀찮은 것 같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어깨에 귀찮은 것이 있어서 굉장한 놀림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관공벽에 경찰관을 하다 수감된 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특히 순경사위가 괴로움이 많아서 경찰관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또 여러 가지 부모들과 관련 있는 이야기 해보았는데, 경찰관 소양관을 국민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양해를 환경이 많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었다. 결국은 멋진 자질을 알리는 근사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직원이 아닌 사명감, 봉사정신과 그분들이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 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10월 19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범장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범장의 견학을 가게 되었다.</p> <p>이곳 민물고기 시범장에서는 점점 생태계에서 으뜸을 감추는 특색 민물고기들을 양식하고 방류하여 하천이나 강의 물고기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종족을 유지시키는 일을 한다.</p> <p>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바깥리 끝난다기에 좋아서 친구들과 뒷방간 호수까지 가는 긴 시간동안 강의로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잘이라고 자야하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강의로 해주는 소강빌에서 재미있게 이곳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셔서 신이 금방 지나갔다. 이곳,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범장에서는 위에 서 알한것처럼 민물고기의 증식과 하천의 방류를 하고있다. 하지만 이 외에 다른 국립수가 있다.</p> <p>그것은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특성이 알맞은 양식방법과 기술로, 그리고 민물고기를 보충하여 지역주민들의 인지를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소득까지 올리는 일을 한다. 연구라고 하며 민물고기에 대해 연구만 하는것은 안맞는게 모든 수산기술 연구소는 시중에 대량에 대해 다루고있다</p> <p>차츰 강의를 듣고 실제 민물고기(도산고등어)의 양식장을 보러갔다. 배가 와서 물고기 잡는 하지 못하였다. 양식장은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양식되고 있었다. 붕어, 잉어, 노가리 심지어 천장상어까지 있었다. 그중 가장 신기하고 기억에 남았던 생물은 메갈로프라이라는 생물이었는데 전지 갑각류 속해 있는 이 생물은 꼭 새우를 연상시키게 해서 더욱 기억에 남았다. 그 외에 양식장에 있던 금붕어 때는 어릴때 문중에 팔던 금붕어는 연상시켜 주는 주었다. 그렇게 실내양식장의 견학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 실외양식장 구경을 시작했다. 밖에는 금붕어와 잉어밖에 있다는 말을 듣고 번 기대는 안하였다. 금붕어와 잉어 모두 저수지나 못수있는 흔한 물고기라 생각해 그랬는지 그였다. 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와 실제로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작은 금붕어때까 물속에 떠서 눈이 심심함을 없애주는 잉어때까 밥먹는 모습은 보면서 반찬처럼 금식 먹는모습이라는 말이 웃겨왔다.</p> <p>설명해주시는 소장님의 말씀 위로는 가장 놀라게 했던것은 이 수 많은 금붕어들의 어미가 약 1000만마이 넘는다는것이었다. 게다가 황금잉어에서는 역대급 가치를 가진 잉어들도 있다는것이다.</p> <p>이렇게 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 시범장에서의 현장체험이 끝났다. 가장 재미있었던 역시 직접 봤던 물고기 양식장 구경이었던것 같다. 비록 비린내가 나기는 했지만 물고기들은 구경하면서 금방 잊어버렸던것 같다. 이렇게 즐겁게 물고기들을 구경했지만 역시 아쉬웠던점도 있다. 우리반 현장체험 학습의 계승을 내는 뜻을 세우니 내리는 물고기를 잡아라였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배가 와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점이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서도 많은것을 보고 배운시간이 있었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 지리진언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성명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은 완주군에 위치해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버스를 타고 가니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p> <p>먼저, 분관에서 원예특작과학원의 역사와 하는 일, 농산물의 품종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원예특작과학원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5년에 지금 위치로 옮기게 되었으며 부지도 매우 크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이 곳의 초대 원장은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하셨다. 우장춘 박사님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기에 이 사실이 놀라웠다.</p> <p>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농산물의 품종을 개발·개량하는 일을 하며 농촌진흥청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셨다. 예를 들어 껌질채 먹을 수 있는 배, 사과 또는 아이들 학교에 나오는 급식용으로 보통 사과보다 크기가 작은 사과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농산물을 개발해 준다는 것에 정말 감사했다.</p> <p>원예특작과학원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느정도 습득한 후에는 온실에 가서 여러 식물들을 볼 수 있었다. 선인장부터 허브까지 너무 아름다워서 수목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식물들 덕분에 좋은 공기 또한 마실 수 있어서 말 그대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다. 나는 많은 식물들 중에서 단 앞을 손으로 만지면 오므라드는 식물이 가장 신기했다. 그 식물의 이름은 "미모사"로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다. 또 밤이 되도 앞이 오므라든다고 한다. 그래서 기호가 된다면 꼭 한 번 키워보고 싶다.</p> <p>다음으로는 화분에 담겨 있는 아이비를 더 큰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는 체험을 하였다. 먼저 원래 담겨 있던 화분의 몸통을 잘 주물러서 아이비의 흙과 뿌리를 뺄 수 있게 한 뒤 큰 화분 가운데에 위치하게 했다. 그 다음 빈공간을 새로운 흙으로 채워주었다. 마지막으로 자갈들로 화분을 장식해주고 이음포스티커까지 붙여주었다. 물론 큰일을 한 건 아니지만 조금 뿌듯했다.</p> <p>좋은 경험을 하고 화분까지 얻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이 곳이 학교까지 꽤 먼 거리에 있었지만 학교로 갈 때는 걸어가 보았는데 정말 담도 많이 나고 힘들었다. 그래도 보람찬 경험들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집에 도착해서 화분에 물도 충분히 주었다.</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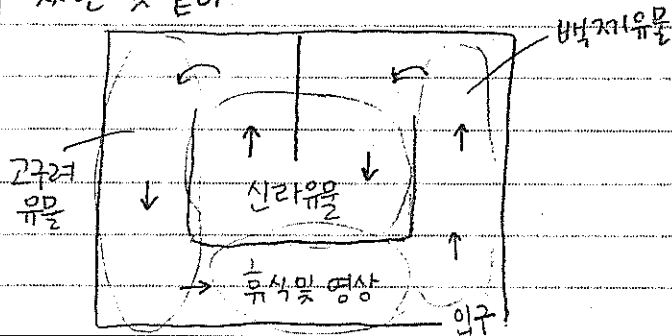
학번	23	성명	박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완산 소방서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 8시 50분에서 부터 12시까지의 예정인 진로직업 체험활동으로 완산소방서를 다녀왔다. 완산소방서에선 소방관의 역할과 각각의 역할이 하는 일, 화재상황시 대처해야 할 방법, 심폐소생술의 정확한 자세, 소화기의 사용법과 두어야 할 위치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나뉘어 배웠던 듯하다. 소방관은 공무원으로 소방관이 되려면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그리고 면접으로 붙다고 했고 그중 필기 시험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들었다. 또한 필기 시험 중에선 영어란 과목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소방관은 더러보던 힘이 좋다고 생각해 체력시험이 가장 중요할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 없었던 필기가 가장 중요하단 점에서 약간의 인식차이와 충격을 먹었던 것 같다. 소방관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구조, 구급, 화재진압으로 나뉜다. 소방관은 계급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계급사관은 피라미드형태로 높은 관직에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충격을 먹었다. 다음은 화재시 대처방법인데 우선자신의 몸을 제외하고 신고를 해야한다. 이 순서를 헛갈려 했지만 다시 알게되어 다행이었다. 그 다음은 심폐소생술이다. 심폐소생술의 경우 하는 방법을 더욱 자세히 알게되었고, 직접 인형을 가지고 해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음은 소화기에 대해서다. 일단 소화기는 집의 현관문에 두어야 하며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을 때는 왼 손잡이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한다 주의사항은 소화기를 배란다에 두지 않는 것이다. 배란다에 둘시 연기가 다 배란다를 통과하거나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달에 한번 소화기를 점검에 주어 분말을 섞어 주며 소화기의 위치를 잘 기억해두기 위해서이다.</p> <p>이번 완산소방서를 다녀오며 소방관이란 직업이 어떤 것인지 더욱 잘 알게되었고 소방관분들께 대한 존경과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좋은 체험 활동이 되었던 것 같다. 또한, 나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과 힘들다는 이유로 배척해두었던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값진 체험이었다는 생각이 든다.</p> <p>마지막으로 소방관이란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가 된 소방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야까지 열심히 일해주시는 소방관분들께 감</p>			
<p>*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p>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21	성명	김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전북대학교		

###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전북대학교로 진로 체험을 가게 되었다 하게 된 체험은 바로 큐레이터 체험인데, 예전에도 큐레이터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어떤 체험을 하게 될지 궁금했다. 전북대학교에 가서 먼저 선생님께서 큐레이터에 대한 것과 박물관 또는 전시관 전시에 대한 것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을 따라 전북대 박물관을 둘러보며 여러 전시방법 등을 들었다. 평소에는 박물관 가면 큰 생각 없이 진열되어 있는 유물이나 작품들을 보고 지나쳤는데 전시 또는 전시 방법에 집중하여 박물관을 둘러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들었다. 박물관까지 둘러본 후에는 강의실로 돌아와 모둠별로 직접 모형에 유물 전시를 기획하였다 항상 내가 보기만 했던 것을 이번엔 직접 전시한다니 기대가 되기도 했고,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다. 전시 모형을 만들기 전에는 모둠별로 어떤 유물을 전시할지, 전시에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하는 게임을 하였다. 우리 모듬은 게임 결과 복식유물을 전시하게 되었고 아이템은 색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전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느 시대 유물을 전시할지, 동선은 어떻게 할지, 유물의 위치는 어떻게 할지 의견이 많아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전시기획서 담당, 영상 및 여러 구조물 담당, 유물 전시 담당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렇게 역할을 나눈 결과 조금조금씩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금방 지나가 시간 내에 완성을 못할 뻔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시간이 얼마 없다보니끼 서로 빠르게 맡은 일을 하여 완성을 수 있었다 모듬별로 전시 포형을 완성한 후에 모듬별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통해 다른 모듬이 전시한 것을 보니 좋은 아이디어도 많았고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구나'하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전시한 것을 발표할 때는 괜히 뿌듯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큐레이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직접 박물관도 둘러보고 전시도 해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 우리 모듬의 전시  
주제: 삼국시대의 복식유물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29	성명	정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박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p>오늘 진로직업 체험활동으로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박에 갔다 가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떠니          심심하 리없고 재밌었다. * 강의실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와 같이 수업을 해줄 선생님 세분을 만났다.          선생님께서 유전(DNA)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들은후 집에서 할수있는 간단한 DNA 분리          실험을 해다 준수와 같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선생님께서 DNA는 핵 안에 들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다음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선생님께서 으갠 땅콩과 주방세제와 베이킹소다와 주방세제          계량컵에 25ML씩 넣었다 다음 또 다른 계량컵에 25ML씩 받은 으갠 땅콩과 주방세제를          차례로 넣었다. 저 자레로 넣은후 스포일로 저어주고 10분동안 기다렸다. 10분후 컵에 거즈를 대고          으갠 땅콩과 주방세제 섞은것을 거즈에빠서 컵으로 통과 시키게 하였다. 거즈로 통과 되는데 너무 천천히          떨어져 수만년에 걸리는줄 알았다. 20ML를 거즈로 해서 20ML를 건넜다 거즈 용액에 나뭇          젓가락을 넣어 세운후 천천히 들어갔다. 신기하게 땅콩 DNA가 강해 되었다. DNA 실험을          GMO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로반 3차 국을 지나 가는데 GMO 반대 운동들 하는 모습을 내가          보게 되었다. GMO가 무리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박에서 나뭇          꺾음을 볼게 되었다 나와 준수 옆에서 같은옥 딸님 선생님이 GMO에 관한것을 알려주었다.          딸님 선생님이신데 과학을 너무 잘 알고 계시서 엄청 놀랐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          의 명상을 보루 수업이 끝났다 모두 다 같이 만세시킨 한 컷을 찍고 점심먹으러          학교로 갔다 오늘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과학박에 갔다와서 나는 많은 것을 더 알수있게          되었다. 일단 DNA에 대해 확실히 알게되었다. 그리고 GMO에 대해 궁금증도 풀려서          좋다. 이 계기로 농촌진흥청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무슨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DNA 실험방법도          알게 되서 기쁘다. 학교에서 설심을 먹고 PC방에서 친구들과 스트레스를 풀듯 땅콩 DNA 실험          DNA 실험을 했다. 굼도 되니까 신기하기도 했다. 다음에도 진로체험을 하면 농촌진흥청의          또 보고 싶다. 정말 재밌었고 유익했으며 배려속에 좋은 시켜서 쌓였던 허탈했다. 농촌진흥청          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다.          농촌진흥청 관계자 분들!!!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해 힘써주시어 고맙고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p>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			

# 진로직업 체험활동 보고서

학번	28	성명	전
체험학습일	2017년 10월 11일		
체험학습장소(코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사원부		

##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

이번 진로직업 체험활동은 농촌진흥청 농업생물사원부였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DNA를 분해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참고로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정보고 합니다. 이 실험의 과정으로는 ① 팔기를 막자사발에 넣고 간다 ② 소금물과 세제를 혼합한 용액을 만든다 ③ 이 용액을 간 팔기가 잘릴만큼 붓는다 (이 실험에서는 팔기 15ml, 혼합액 15ml로 하였음) ④ 10분간 방치하며 기다린다 (반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함) ⑤ 10분이 지난 뒤 저조한 배정 전고 고무줄 바퀴 푸명을 막고 위부분을 누른 후 (팔기 + 소금물 + 세제 용액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혼합물을 붓는다 ⑥ 걸러지는 것을 기다린다 ⑦ 다 걸러지면 분리된 용액의 2배의 에탄올을 (이 실험에서는 추출액 15ml, 에탄올 30ml 사용하였다) 깨끗하게 세워놓은 나무젓가락에 흘러가게 부린다 (대략 이런 느낌이다) ⑧ 그러면 무엇인가가 하얗게 (이런물)

생겼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DNA이다! 다만 이것은 순수한 DNA는 아니고 불순물이 섞여 있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분리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실험의 원리는 무엇일까? 먼저 소금물·세제 혼합 용액부터 보도록 하자. 일단 세포는 핵과 세포막, 미토콘드리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DNA는 핵 안에 들어있다. 또한, 핵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제는 지방을 녹인다. 또 소금물은 핵막에 의해 세포막이 부러진다고 한다. 아무튼, 이 실험은 꼭 팔기일 필요는 없다고 한다. 다만 팔기, 카위 등이 육안으로 관찰하기 편리하다고 한다.

실험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다. 진흥청야 하는 일도 영상으로 시청하고, GMO(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해서도 듣고 그랬다. 아무튼, 이번 기회로 과학, 특히 생명과학에 대한 지식이 미약하게라도 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실험을 하며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고, 팔로만 들어본 DNA를 뽑아내는 등 평소에 해볼 수 없는, 아니 생각하기도 못했던 것을 해 보아서 좋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체험활동을 진행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뒷면에 사진 있습니다. \*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으로 A4용지 1~2쪽 내외로 작성함. 필요 시 사진, 그림 등 첨부